

[메시지] 프로포즈 (3344 여성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 하용조 목사 (2003. 10)

둘째날 ‘결혼이야기’

연약한 인간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물일곱 정도에 결혼한다고 볼 때, 인생의 3분의 1은 학창생활이고 그 나머지 3분의 2는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결혼 생활이 점점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결혼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이 행복하고 복된 결혼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일 우리가 결혼을 만드신 그 분, 가정을 만드신 그 분을 만난다면 결혼에 어떤 고통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복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복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때 행복한 결혼, 복된 결혼의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결혼은 운명도 아니고 본능도 아닙니다. 결혼은 결코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결혼이 사주팔자라면 모두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혼수도 아닙니다. 자동차나 아파트 열쇠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극적으로 살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미하게 살라고, 방황하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출하라고, 불행해지라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위기의 삼십대에서 축복의 삼십대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남자는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고급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우락부락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고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아담은 아내 이브를 만났습니다. 그 둘은 스스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담은 이브를 처음 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창2:23)”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남편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면 그 복이 여러분 남편에게로 전달됩니다. 부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할 때는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살다 보니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건 제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당신 표정은 왜 그러냐’며 화를 냅니다. 인간은 이처럼 다 이기적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잊지 마십시오.

남녀에게는 다른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체질입니다. 30대와 40대는 상대의 체질을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고치려고 할수록 서로 상처받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것은 A형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O형으로 바꾸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A형은 A형답게, O형은 O형답게, 급한 사람은 급하게 살게 놔두십시오.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체질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체질이 다른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문화가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 습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의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이들은 보고 자란 것이 다 다릅니다. 체질이 다른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면 문화가 다른 것은 이해하십시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상처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은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이 우울증, 편집증,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 상처 때문입니다. 계란을 먹고 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이런 상처가 있듯이 학교, 제도, 사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부부사이에 이런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그 분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인간의 용서에는 참된 용서가 없습니다. 참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상처는 그 분

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 분이 엄청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은 고난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늘 파도처럼 옵니다. 문제를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잡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 속으로 '믿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